

전남도, 광양만권 일대 '동북아 LNG 허브' 만든다

(주)한양·GS에너지(주)·여수시와
여수묘도 LNG터미널사업 투자협약
1조4000억 규모 2027년 완공 목표
여수·광양만권 산단에 안정적 공급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 투자협약 2024. 3. 19.(화) 전라남도청 서재필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정기명 여수시장, (주)한양 이왕재 사장, GS에너지(주) 김성원 부사장과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1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주)한양, GS에너지(주), 여수시와 함께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터미널 사업의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영록 전남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이왕재 (주)한양 사장, 김성원 GS에너지(주)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업은 여수 묘도동 일원 8만3000여평 부지에 민간 자본 등 총 1조4000억원을 투자해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다.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7년 12월 완공 목표다. 완공되면 2028년부터 2047년까지 20년 동안 여수·광양만권 산단에 산업용·발전용 액화천연가스를 연간 300만톤씩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사업 초기에는 순수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작했다. 2020년 동북아 액화천연가스 허브터미널(주)(SPC) 설립 후, 2021년 부지 매입 및 기초공사를 마치고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까지 받았으나, 고금리로 민간 투자금 유치가 어려워 지연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시행과 함께 전남도와 여수시가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의 마중물로서 이 사업에 뛰어들며 물꼬가 트였다.

여수 묘도는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입지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글로벌 액화천연가스 거

래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동북아 중심에 위치하며,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여수국가산단과 인접해 있다.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고용 유발 효과 1만3000여명, 생산유발효과 약 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터미널이 운영되는 20년간 지방세,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지역에 재투자되는 직접 비용만 해도 연평균 242억원 규모로 경제적 효과도 막대하다.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사업은 환경적·산업적 확장성도 크다. 기존 석탄 발전에서 저탄소 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점차 대체됨에 따라 여수·광양만권 대기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액화천연가스 저온 설비를 활용해 냉동 물류, 바이오의약품, 초전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

으며, 액화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액화천연가스 선박을 비롯해 친환경 선박 산업도 약 65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도는 1조4000억원 규모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을 기반으로 수소, 암모니아, 탄소 포집·저장(CCUS) 등 분야까지 확장하는 글로벌 에너지 메카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 수도로서,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액화천연가스(LNG)도 탈탄소 시대를 열어가는 '브릿지 에너지'로서 가치가 크다"며 "여수 묘도를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 일대를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LNG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스토리' 발굴 작가 키운다

광주시, OTT플랫폼 맞춤형 기획...4월3일까지 11명 모집

광주시가 광주만의 자연·문화자원을 발굴할 원천 스토리 창작 작가 육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4월 3일까지 '2024년 OTT플랫폼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 중 하나로 광주 스토리 창작 작가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위한 원천스토리 창작분야 6명과 스토리 완성분야 5명 등 총 11명이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스토리 창작지원금과 함께 24시간 자유롭게 집필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공간 '스토리집' (전일빌딩 245, 6층)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작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제작사와 작가를 연결하는 투자 유치(피칭), 사업자 연계(비즈 매칭) 행사 참가 등도

지원한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은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광주형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스토리 개발과 창작자 육성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7명의 작가를 육성하고 34편의 작품을 발굴했다. 지원 작가 작품은 카카오 페이지, 교보문고, KT스튜디오지니 등 다양한 플랫폼에 연재되는 성과를 거뒀다.

백은아 광주시 콘텐츠산업과장은 "광주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작품들이 국내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무주택 청년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25일~4월 3일 누리집 신청

광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19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대상은 신규 200명을 포함한 총 500여명으로 대출 이자 연간 최대 200만원을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은 연 2.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올해는 대상 주택을 신규뿐 아니라 갱신 임차 계약까지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

사(LH) 임대주택, 비특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여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 이율 2.5% 중 광주시가 2%P를 지원한다.

접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4월3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 결과는 4월 19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 게시하고, 개인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오인창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자립 기반과 광주에 정착하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통합국립의대'로 정부에 신청 "30년 염원 기회 살려야"

순천시·순천대 단독 유치 움직임...자칫 갈등 양상 빚어질 우려
김영록 전남지사 "건전한 의견 낼 수 있지만 지역별 갈등 안 돼"

민선 8기 전남도가 총력을 기울여온 국립 의대 신설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순천시와 순천대가 단독 유치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대 신설을 진두지휘해왔던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러한 움직임이 자칫 갈등 양상으로 외부로 비취질 것을 우려하며, 통합국립의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차원에서 다를 수 없는 복합·다층 사안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정·조율 권한을 부여해 불필요한 마찰로 인한 행정정력의 낭비, 여

론 외국에 따른 피로감 증가 등을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는 지난 18일 정부에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신청하고 향후 정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통합국립 의대(100명) 신설 몫이 포함되도록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 지사는 19일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최초로 국립의과대학 신설 길을 열어준 만큼, 이번 정부 의대 증원 계획에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이 포함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은 전남도민의 30년 염원"이라며 "정부 계획 자체는 2025학년도 증원 계획이지만, 그 계획에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이 포함되면 가장 좋고, 안 될 경우 따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통합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도민 찬성의견이 많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방향을 이해하고 있다"며 "캐나다에서 통합의과대학을 신설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성공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별로 단독 유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겠지만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건전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 의사 표명이 갈등구조로 비쳐져선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KF-21 공중급유 첫 성공...'원거리 작전능력 극대화'

2026년 전력화가 추진 중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유사시 작전반경을 확대하기 위한 공중급유 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KF-21 시제 5호기(단좌)가 19일 오전 경남 사천의 제3훈련비행장을 이륙해 남해 상공에서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공군의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가 비행하면서 급유 막대를 KF-21에 연결해 연료를 주입했다. 공중급유시 발생하는 급유기 뒤쪽

의 난기류가 KF-21 조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급유기와 KF-21의 연결·분리가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등을 점검했다. 공중급유를 하게 되면 체공 시간이 길어져 원거리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적진에 투하할 폭탄도 더 많이 탑재할 수 있다.

KF-21은 작전 시제 6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했고, 초음속 비행과 공대공 무장 분리 등의 다양한 시험을 통과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펜션 급매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실11개, 히노끼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가능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3. 13(수) 오후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두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3. 6(수) 오후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점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점(사주, 공합, 택일 등)
- 작명(신성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2024 고소득 추천 묘목

포도나무	제릭스 빅걸	선플라워×샌도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선발된 최고 크기의 포도, 최대 과중 800g
사과	리만스 달라이트	프로리픽×샌도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육중된 품종, 달콤한 향에 뛰어난 품질을 자랑
감	마리아스 조이	최대과중 631~704g, 년중 수확량 우수 유명 과수 학자가 지칭한 최고 맛있는 포도
인나무	신품종부사 후지사과	인따기와 반사필링을 꺾지 않아도 동서남북 색상이 잘나고 저장성이 우수하며 신맛은 적고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감	감풍, 원주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수퍼 단감
인나무	태추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인나무	슈퍼대봉	대봉중에 맛이 뛰어나 식재료를 많이 합니다.
인나무	민들레 참두름	가시없는 민들레, 참두름, 정강두름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사과, 신품종 후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4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절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갑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묘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 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 땅 상담해 드립니다.

문의상담 **010-3121-7676**
문의전화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 25 동협 703-02-497271(예금주 정준화)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희숙(670929-2XXXXXX)
• 최후주주: 여수시 남평읍 1040
• 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여수시 남평읍 1040

피상속인 망 김희숙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법원 순천지원 2024년단10081호로 신청하여 2024년 3월 1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승수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3월 20일
• 상속인: 박종민(670925-1XXXXXX)
여수시 하문정1길 18, 2층 305호 (문수동, 흥화아파트)
• 신고기간: 2024. 3. 20. ~ 2024. 5. 30.
• 채권신고처: 상속인 박종민의 주소

72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판례
북구: • 동광 266-1920 • 문흥 266-1960
• 북광 525-3761 • 신안 222-8171
• 양산 571-7658 • 오지 266-7801
• 용봉 433-1503 • 우산 433-1503
• 남광 673-6836 • 중앙 222-9054
• 동부 225-6001 • 중앙 222-9054
• 중앙 222-8171
남구: • 남부 673-6836 • 백운 651-1833
• 동진 673-6836 • 송학 675-6605
• 진흥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흥 376-7153
• 치명 376-6511 • 용암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문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청단 973-2900 • 하남 955-0451
• 광산 944-0444